

욕망에서 문명으로*

- 프로이트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정미라**

주제분류 사회철학, 사회윤리학, 사회심리학

주요어 프로이트, 욕망, 문명, 무의식, 자기보존본능

요약문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과 무의식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성과 의식적인 주체에 근거해 있는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한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쾌락본능을 추적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사회이론, 즉 문명이론으로 확장한다.

그러나 문명이 오직 쾌락본능에 의존한 행복을 억압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론적 한계를 노출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의 행복이 지닌 다층적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내용의 다양성을 생물학적인 층위로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의 행복과 문명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행복과 문명의 화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1. 머리말

프로이트가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는 문명¹⁾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본능²⁾에 대한 억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문명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러한 고발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명이,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가능하게 한 이성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았던 서양의 근대에서조차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는 문명에 내재한 불편함을 이미 감지했으며, 문명의 발전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문명에 대한 프로이트의 논의가 현대 철학적 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가 문명에 내재해 있는 인간 삶의 복합적인 요소를 새롭게 해명해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문명 사이에 놓인 적대적인 관계를, 즉 문명이 인간의 본능을 억압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에 적대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문명 속에 함축된 인간의 행복과 생존 사이의 숙명적인 모순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다. 또한 그는 문명에 의해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해냄으로써 근대 이후 지배적인 주체의식에 의문을 제시하며, 개인적인 병리현상 뿐 아니라 문명 속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의 원천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
- 1) 독일어의 Kultur는 문화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이트 자신이 「환상의 미래」에서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는 것을 경멸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한국어 번역본에도 대부분 문명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본 논문의 문맥상 문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명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S. Freud(김석희 옮김), 「환상의 미래」,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168쪽.
 - 2) 본 논문에서는 욕망을 성적인 욕망과 관련해서 사용하며, 따라서 본능이나 욕망, 쾌락충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신경증이라는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 쾌락에 토대를 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과 무의식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성과 의식적인 주체에 근거해 있는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연적 본능으로서 인간의 욕망은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이래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개인의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에,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따라서 욕망의 억압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모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칸트를 위시한 근대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또한 욕망을 이성과 대비되는, 따라서 이성에 의해 조절되고 억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인간에게 내재해 있지만, 그러나 거부되었던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은 프로이트에 의해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에 의하면 욕망, 특히 성적쾌락에 근거한 욕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 원천이지만, 생존을 위한 문명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억압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욕망의 충족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것이다.³⁾ 또한 욕망의 억압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병리적 현상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프로이트의 욕망 이론은 인간과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성적 쾌락의 만족에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내재해 있는 생물학적인 환원주의적 성향은 인간 삶의 다양한 층위를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그의 이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행복과 자기보존이라는 이분법적 사유는 욕망과 문명이

3)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지배하지만 이러한 쾌락원칙의 프로그램은 “완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규정한다. S. Freud, 『문명속의 불만』, 248쪽.

라는 연결망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인간의 지속적인 변이과정을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을 자연적 욕망과 문명의 대립 속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인간의 무의식의 해부를 통해 드러난 쾌락본능과 현실세계, 그리고 문명사이의 긴장관계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의를 추적함으로써 프로이트 이론이 지닌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근거해 있는 생물학주의와 이분법적 사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행복과 문명의 화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프로이트가 새롭게 제시한 무의식의 세계와 욕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2장), 생물학적인 본능과 현실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의 구조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3장), 문명화 과정 속에서 변이되는 인간의 욕망과 행복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4장).

2. 무의식과 욕망

프로이트의 심리치료 방법인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두 층위, 즉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계를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정신분석학의 기본전제”⁴⁾이다. 정신분석학은 심리적인 병리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꿈의 분석과 최면이라는 방법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세계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추론해낸다.⁵⁾ 무의식에 대한

4) S. Freud(윤찬기,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5, 348쪽.
5)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현실세계나, 혹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는 인식할 수 없으며 오직 “꿈과 신경증이라는 조건에서만 인식할 수 있다”. 앞의 책, 191쪽. 특히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모든 인간은 밖에 드러낼 수 없는 소원을 지니

프로이트의 이러한 논의는 철학적 관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 철학적 사유를 지배해왔던 의식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⁶⁾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세계와 함께 인간을 자각적이며 자율적인 이성의 지배를 받는 주체적 존재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이해, 즉 “현대성”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사유는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⁷⁾ 또한 충동과 본능으로 얽혀진,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심연의 세계인 무의식의 영역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인간 정신 활동으로서 현대의 철학적 논의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현대의 철학적 담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⁸⁾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방법인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의 세계를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에서 인지할 수 없지만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초적인 1차적인 정신과정”⁹⁾으로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감추어진 질서라 할 수 있다.¹⁰⁾ 프로이트는 심

고 있으며, 이러한 소원은 오직 의식이 없는, 꿈의 상태에서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S. Freud(김인순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18, 164쪽 이하 참조.

- 6) 라강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적인, 즉 데카르트적인 주체의 확실성을 해체시켰으며,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J. Lacan(권택영 옮김),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2003, 78쪽 이하.
- 7) 이와 관련하여 알랭 투렌은 프로이트가 “현대성의 신화를 파괴”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현대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행해진 가장 체계적인 공격”이라고 이해한다. A. Touraine(정수복, 이기현 옮김), 『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6, 172쪽, 156쪽.
- 8) 김상환은 “무의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철학, 정신분석이 도달한 이론적 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철학은 현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창작과 비평사, 2003, 40쪽. 또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역동적 성격을 강조한 김석은 자신의 논문 「쾌락자아와 현실자아」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 “현대 뇌과학의 성과에 대해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석, 「쾌락자아와 현실자아」,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2013, 31쪽.
- 9) S.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12쪽.

리적인 안정상태가 무너지고 이와 함께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추적을 통해, 그리고 의식에 나타나는 단절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로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해낸다.¹¹⁾ 즉 그는 의식이 자아를 구성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근대적 사유를 비판하며 “정신분석학은 정신계의 본질을 의식 속에 위치시키지 않고 의식을 정신적인 것의 한 특성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다른 특성들에 덧붙여져 존재할 수도 있고 부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¹²⁾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활동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따라서 인식이 가능한 정신작용으로서 대지의 표면에 있는 것과 같은 의식과, 아직은 의식되지 못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의식될 수 있는 대지의 지표와 같은 전의식, 그리고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지의 심연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지형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이트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에 대해 시간적으로나 발생론적으로 선행하는 세계로 규정하며, 쾌락과 억압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의식적인 사유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1차적 정신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은 오직 “쾌락 - 불쾌의 원칙, 또는 더 간단히 쾌락원칙”에 의해 규제된다.¹³⁾

10) 라캉은 무의식의 독일어인 “Unbewußte”의 Un이 “결여”의 의미를 지니며, 무의식은 “그 속에서 꽃피워진 모든 것이 군사체처럼 하나의 중심점을 놓고 퍼져나가는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어떤 존재의 수준”을, “결정되지 않은 것로서의 주체”를 의미한다. J. Lacan(맹정현, 이수련 옮김),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46쪽.

11)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확신에 이르는 프로이트적 사유의 길을 “모든 사유가 불확실해지는 곳에서 확실한 사유를 발견하는” 데카르트적인 회의의 길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김상환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부재하는 사유”로 규정한다.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46쪽.

12) 앞의 책, 348쪽.

13) 앞의 책, 12쪽.

“원초적인 제 1차의 정신과정들은 쾌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불쾌를 조장하는 사건이 있다면 자연히 정신활동은 그 사건으로부터 물러서게 된다. (...) 밤에 꾸는 꿈,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괴로움을 주는 여러 인상들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쾌락원칙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자 그 원칙이 어느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는지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¹⁴⁾

인간의 정신은 쾌락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며, 쾌락에 대한 추구는 하나의 “소원충동”으로서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걸리지 않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다. 따라서 쾌락충동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분별하게 만족되는 것을 요구한다. 프로이트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나타나는 오이디푸스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 충동을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규정한다.¹⁵⁾ 그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이러한 쾌락충동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원초적 쾌락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충동, 즉 리비도가 집중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무의식 영역은 “무시간성”¹⁶⁾을 특징으로 한다.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리비도는 이러한 시간성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강렬하게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무의식의 과정들은 현실세계와는 어떠한 연관도 지니지 않은 채 오직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따라서

14) 앞의 책, 12쪽 이하.

15)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자아를 향한 리비도 집중”으로 이해하지만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대상 리비도 집중”을 통해서 비로소 “성적 에너지와 자아 본능 에너지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을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성적 욕망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앞의 책, 49쪽.

16) 앞의 책, 297쪽.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쾌락충동이 현실세계와 갈등을 일으킬 때 이러한 쾌락충동은 사라지지 않고 억압된 형태로, 현실세계 속에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즉 쾌락충동이 억압된다고 해서 이러한 쾌락원칙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단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¹⁷⁾ 이와 함께 무의식은 쾌락원칙에 의해 규제되지만, 동시에 표면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억압의 형태를 자신의 필연적인 속성으로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원초적인 1차적인 정신과정”으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것이 현실세계로부터 저항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억압된 채로 무의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더 발전되어 의식의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해있는 쾌락 충동이 표면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억압을 처음부터 존재하는 방어기제에 의해서가 아닌, “의식의 정신활동과 무의식의 정신활동사이에 확연한 간극”¹⁸⁾이 발생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¹⁹⁾ 무의식적 충동은 쾌락을 얻고자 하는 철저히 개인적인 정신 활동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는 억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간들과 공존해야 하는 현실세계의 사회적 규범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들은 의식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정신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차적인 정신과정”인 무의식이 “자유롭게 전이가 가능한 리비도 집중”이라면, 2차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는 의식은 “구속된

17) 무의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프로이트는 꿈에서 발견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의식에 나타날 수 없는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S. Freud, 『꿈의 해석』, 164쪽 이하.

18) S.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139쪽.

19) 같은 곳.

리비도 집중”으로서 정신활동의 검열과정을 거친, 리비도의 억압을 통해 표출된다.²⁰⁾ 인간의 정신활동을 구성하는 두 영역인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이 두 층위에 걸쳐있는 억압의 기제를 통해 개인의 삶은 분열적인 이중적 상황에 처해있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개인은 실제로는 이중의 생활을 영위한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의지에 반해서, 아니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종의 연쇄 사슬의 한 구성원으로 영위하는 삶이다.”²¹⁾

쾌락의 원칙, 즉 성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1차적인 정신과정”으로서 무의식의 영역과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적으로는 용인되지 않은 의식의 영역사이의 간극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긴장은 프로이트에게서 인간의 심리적인 병리 현상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이들 사이에 야기되는 억압은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인 정신의 과정이며, 특히 억압은 공동체적 질서와 문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병리적 현상을 야기 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억압은 단순한 일회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 즉 리비도가 변함없이 존재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의식의 영역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러는 한 인간의 정신생활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행복해 지려는 무의식적 추동력과 이러한 추동력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억압하는 의식적 노력 사이의 “지속적인 전쟁상태” 속에 있다. 결국 이러한 긴장을 견뎌내지 못한 개인은 병리적인 심리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며,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나 사회적 규범들 또한 늘 해체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게 된다.

20) 앞의 책, 16쪽.

21) 앞의 책, 52쪽. 프로이트는 개인의 이러한 이중적 생활이 심리적인 병리현상 야기하는 원인으로 규명한다.

3. 자아의 구조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무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의식으로 분석한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자아의 구조를 해부한다. 데카르트 이후 자아는 “사유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즉 자기의식적인 존재를 의미하였다.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근대적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지닌 주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을 타자로부터 명확히 구별하는 자기 동일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프로이트는 의식적인 자아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러나 자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인간의 정신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대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이해한다. 자아는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분명하게 파악 가능한 안정적인 자기 동일적인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프로이트에게서 자아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힘인 리비도, 즉 이드에 의해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표류하는 존재이며, 타자, 즉 타인들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외부세계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자아의 이상인 초자아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자아는 근대적 자아처럼 자기 동일성을 지닌 존재로서 단일한 형태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비로소 구성되는, 분열적 존재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자아를 “세 주인을 섬겨야 하고 따라서 세 가지 위험 즉 외부세계, 이드의 리비도, 초자아의 가혹함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가련한 존재”²²⁾로 규정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아의 이러한 분열성은 성적 본능과 자아본능, 혹은 자기보존본능이라는 자아의 원초적인 두 가지 본능과 이에 상응해서 나타나는 쾌락자아와 현실자아라는 자아의 이중성에 기인한다.²³⁾ 이미

22) 앞의 책, 402쪽.

언급한 것처럼 자아의 근본적인 목적은 쾌락이며, 이러한 쾌락은 오직 성적 본능의 충족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성적 본능의 충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자아는 자기 보존을 위해 외부세계와 필연적으로 관계하게 되며²⁴⁾, 이러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쾌락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전혀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현실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현실자아가 생겨나며, 이러한 현실 자아는 궁극적으로 자기보존본능에 근거해 있다. 프로이트에게서 쾌락본능과 자기보존본능은 인간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본능이며, 따라서 자아는 대립적인 이 두 본능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을 구성한다.²⁵⁾

자기보존본능에 근거해 있는 현실원칙은 때로는 “원초적인 1차의 정신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자아의 쾌락본능을 억압하기도 하며, “종교”, “학문”, “교육”, “예술”로 유인함으로써 쾌락본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아는 이러한 현실원칙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현실자아가 쾌락자아를 항상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

-
- 23) 프로이트는 인간이 두 가지 본능, 즉 자아본능(자기보존본능)과 성적본능에 지배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심리학적 가설이 아닌 “생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앞의 책, 53쪽.
- 24) 외부세계에 대해 프로이트는 “어쩔 수 없이 중의 연쇄사슬의 한 구성원으로 영위하는 삶”으로 규정한다. 앞의 책, 52쪽.
- 25) 김석은 자아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쾌락자아와 현실자아를 역할 분담처럼 간주”함과 동시에 “쾌락자아가 중심이며 현실자아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이미 경험한 쾌락을 다시 추구하면서 쾌락자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김석, 『쾌락자아와 현실자아』, 38쪽. 그러나 쾌락자아와 현실자아를 각각 독립적인 자아로 이해하는 김석의 견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억압이나 혹은 심리학적 병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자아가 지닌 역동성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쾌락자아가 중심이며 현실자아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자아와 현실자아는 기본적으로 대립해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아의 자기보존 영향 하에서 쾌락원칙은 현실원칙에 대치”된다. 즉 현실원칙에 근거한 현실자아가 쾌락자아를 억압함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 S.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273쪽.

서 쾌락본능과 자기보존본능은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어떠한 억압에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자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쾌락본능은 “<교육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성적 본능에 의해서 구사되는 작업방법으로서”²⁶⁾ 의 식적인 자아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쑥 나타남으로써 현실자아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현실자아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쾌락과 자기보존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본능으로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며 조정한다.

인간을 규정하는 현실자아와 쾌락자아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러한 분석은 프로이트가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후기에 현실과 쾌락이라는 두 원칙에 근거해 있는 자아를 하나의 동일한 리비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아로, 즉 “주체 자신의 자아를 그 대상으로 취하는” 자아본능, 즉 자기보존본능이 쾌락에 근거해 있는 성적 본능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⁷⁾ 자아는 더 이상 쾌락자아와 현실자아의 분열로서가 아니라, 이드와 자아이상, 즉 초자아로 구성된다.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오직 쾌락의 원리만을 따르는 성적 본능인 이드와²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좌절로 형성된 외디푸스 콤플

26) 같은 곳.

27)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나르시즘에 대한 분석 이후에 “나르시즘적 자기 보존 본능은 리비도적 성본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와 함께 현실원칙과 쾌락원칙이라는 자아를 구성하는 이중적 성격을 생명본능(에로스)으로, 그리고 이에 반해 자신을 파괴하려는 힘인 죽음 본능이 자아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앞의 책, 339쪽 이하. “<성적본능>, 혹은 에로스는 ... 자기보존본능도 포함한다.” 앞의 책, 382쪽.

28) 프로이트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로테크로부터 무의식 속에 있는 자연적인 충동을 의미하는 이드(das Es)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그는 그로테크가 “비인간적인 것, 다시 말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이 문법적 용어를 사용”한 니체로부터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 앞의 책 361쪽 이하 참조.

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로 나타나는 초자아에 의해 형성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버지와 동일시로부터 형성된 초자아는 위에 대한 일반적인 동일시 과정을 거쳐 규범이나 관습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규제한다. 즉 초자아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좌절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동일시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성격을 지닌 요소와 역사학적 성격을 지닌 요소의 결과”²⁹⁾로 형성된다. 따라서 외부세계와 관계하며 자기보존원칙에 지배되는 자아는 한편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선악도, 어떠한 도덕도 알지 못함으로써”³⁰⁾ 자아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이드와 초자아의 과도한 요구에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이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긴장 속에서 불안하게 존재한다.³¹⁾

프로이트는 자아가 쾌락본능에 의존하는 이드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초자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이 둘 사이의 경계에서 자신을 중재자의 위치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자아의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보존본능에 의해 추동된다. 쾌락자아와 현실자아로 분열되었던 자아는 자기보존이라는 생명에의 본능인 에로스 속에 통합된다. 특히 자아는 자기 보존을 위해 타인들 및 외부세계와 필연적으로 관계하며 에로스는 자아를 타인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자아의 자기보존본능을 충족시

29) 앞의 책, 376쪽.

30) S. Freud(임흥빈, 홍혜경 옮김), 『새로운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14, 102쪽.

31) 피터게이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자아를 “내부와 외부의 요구에 대처하는 인류 최고의 도구”로 규정한다. P. Gay(정영목 옮김), 프로이트 II, 교양인, 2014, 115쪽. 프로이트는 외부세계와 초자아, 그리고 이드라는 세 주인을 섬기는 자아가 “세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그것들의 지나친 압박을 받게 되면 불안공포로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불안은 “외부세계에 대한 실제적 불안, 초자아에 대한 양심의 불안, 이드 안에 있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에 대한 신경증적 불안”으로 나타난다. S. Freud, 『새로운 정신분석강의』, 106쪽 이하.

킨다. 자이는 자신의 쾌락본능을 억압함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와 예술, 학문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화’를 통해 쾌락 본능의 억압에 의한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를 매개한다.

승화는 프로이트에게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승화를 통해 인간은 개인적인 삶을 벗어나 공동체적 삶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승화는 문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뿐 아니라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쾌락본능은 승화를 통해 비로소 동물적인 것 다른 인간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명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 즉 리비도로 변환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에 집중했던 초기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사회적인 현상, 즉 문명 속에 내재하는 병리현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확장된다. 자기 보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문명화과정은 인간의 쾌락본능에 대한 억압에 근거해 있으며, 따라서 문명의 발전은 개인의 쾌락본능, 즉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러한 병리현상을 야기하는 사회적인 기제라 할 수 있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그리고 문명에 내재해 있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억압적인 힘을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한다.

4. 욕망과 문명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문명사에 대한 이해로 관심을 확장시킨 프로이트는 인간의 문명화 과정을 자아에 내재해 있는 이원론적인 구조, 즉 쾌락본능과 자기보존본능에 근거 지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명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기보존본능이라는 현실원

칙에 기초해 있으며, 따라서 쾌락본능에 대한 억압을 필연적으로 함축하게 된다. “유기체의 자기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쾌락원칙은 처음부터 아주 비효율적이며, 심지어는 매우 위험”³²⁾하기 때문에 “1차적 정신과정”으로서 인간을 지배하는 쾌락원칙은 자기 보존을 위해 현실원칙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요약”³³⁾될 수 있으며, 문명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프로이트는 생존본능을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개인의 쾌락, 즉 행복에 대한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개인적 삶의 궁극적 목적인 쾌락본능의 충족에 의한 행복은 실현되기 어려운 신기루와 같은 것일 뿐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는 <천지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나 이러한 문명 안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문명 없이 살 수 없지만, 문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없다.”³⁴⁾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문명은 개인의 행복을,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이와 함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었던 무의식의 영역은 이와 함께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을 넘어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현상을, 즉 문명사 전체를 진단하는 “사회이론”으로 확장된다.³⁵⁾ 물론 프로이트는 유아기에서 발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좌절에서 야기된

32) S.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273쪽.

33) S. Freud, 『문명속의 불만』, 302쪽.

34) P. Gay, 프로이트 II, 350쪽.

35) 마르쿠제는 프로이트의 문명이론을 재해석한 『에로스와 문명』에서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는 “깊은 차원에서 사회이론”임을 명시하고 있다. H. Marcuse(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출판, 2004, 25쪽 이하.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모든 관계의 원형으로 이해함으로써 생물학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어린아이 - 어머니 - 아버지라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벗어나 타인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함께 초자아의 형성에 기여하는, 그리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적 관심을 생물학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것으로 넓혀간다. 또한 성적 본능인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 욕망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와 자연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³⁶⁾

프로이트에게서 성적 본능의 충족과 관련된 쾌락원칙이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현실원칙은 외부세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에게서 문명화과정은 외적으로는 인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공동체적 질서로서 개인에게 강제하는 힘으로 나타나며,³⁷⁾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서 문명화 과정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승화”를 통해 자신의 본능을 사회적인 방식으로 변이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프로이트는 승화를 성적 욕망으로부터 차용된 힘으로 규정하는데, 개인은 이러한 승화를 통해 공동체와 매개될 뿐 아니라, 자신의 쾌락본능을 “사회적인 본능”³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쾌락본능의 단념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자신을 괴롭히는 성적 욕망과 화해한다.³⁹⁾

36) 앞의 책, 25쪽.

37) 이와 관련해 프로이트는 “문명의 요소는 이런 사회관계를 규제하려는 최초의 시도와 함께 무대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S. Freud, 『문명속의 불만』, 270쪽.

38) H. Marcuse / E. Fromm(오태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선영사, 2016, 163쪽.

39) 마르쿠제는 프로이트가 ‘승화’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쾌락 그 자체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H. Marcuse, 『에로스와 문명』, 34쪽. 그러나 프로이트에게서 ‘승화’는 개인의 원초적인 본능인 쾌락본능을 다른 본능으로 대체할 수

“인간의 끊임없는 성본능은 문명 활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 본능이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덕택이다. 인간의 성본능은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최초의 성적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승화 (Sublimation)>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성 본능이 문명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바로 이 승화 능력에 있다.”⁴⁰⁾

그러나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승화는 궁극적으로 쾌락본능을 대체할 수 없다. 승화는 단순히 자기보존을 위해 현실세계와 화해하고자 하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지닐 뿐, 승화 자체가 쾌락본능과는 다른 인간의 선천적인 어떤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행복감을 야기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소질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승화는 쾌락본능처럼 강렬하게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⁴¹⁾ 결국 승화능력을 통해 본능적인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문명과 과정은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본능을 결코 잠재울 수 없으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 문명은 늘 “불안한 토대 위에서 유지”⁴²⁾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쾌락 본능과 관련해 야기되는 문명의 이러한 불안정성은 문명의 발전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개인의 쾌락 본능이 분출해도 문명은 이러한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여전히 발전을 지속하게 되며, 개인은 자기보존을 위해 공동체적 질서에 순응하거나 혹은 승화를 통해 공동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⁴³⁾ 그리하여 개인을, 즉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문명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단지 원초적인 본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어서, 무의식에 잠복되어 있는 쾌락본능은 언제든지 자신의 원래의 모습대로 분출될 수 있는, 따라서 문명에 대해 불안한 요소로 존재한다.

40) S. Freud, 『문명속의 불만』, 16쪽.

41) 앞의 책, 252쪽.

42) 앞의 책, 49쪽.

인간은 자신의 행복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행복 없는 생존의 맹목성이 인간의 삶의 내용을 지배한다. 공동체적 삶의 토대위에 있는 문명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불화 속에 있으며, “문명 속의 불안”이라는 프로이트의 표현은 문명이 야만으로 되돌려질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이러한 문명화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개인의 정신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즉 문명에 의한 본능의 억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개인들은 단순히 행복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겪게 됨으로써 가혹한 상흔을 입게 된다. 프로이트에게서는 “결여된 문명과 완전한 행복의 결합이나, 신경증의 문명과 불완전한 행복과의 결합이나 하는 것이 유일한 양자택일이며”,⁴⁴⁾ 결국 그는 후자를 택함으로써 문명의 편에 서게 된다.

문명과 행복의 이러한 화해할 수 없는 불화는 프로이트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즉 모든 행복을 성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환원시키는 생물학주의와 자기보존 본능을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유물론적 관점으로부터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는 인간의 삶을 변하지 않는 본능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적·역사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본능 자체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한다. 또한 인간의 본능을 오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사회적 본능을 도외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 삶이 지닌 다원적 성격을 간과한다.

프로이트는 문명이 자기 보존에 근거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보존본능이라는 생물학적 가치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궁극적인 원리임

43) 개인이 자기보존을 위해 현실세계의 원칙에 순응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규범에 복종하는 것을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로 이해하는 가서는 프로이트가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주어진 사실로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존재로 이해한다고 비판한다. R. Gasser, *Nietzsche und Freud*, de Gruyter, Berlin, 1997. 293쪽 참조.

44) H. Marcuse / E. Fromm(오태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333쪽.

을 제시한다. 그러나 문명을 추동하는 힘이 자기 보존본능이라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문명이 야기한 다원적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자기보존본능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절대적인 원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자기보존본능이 도덕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 혹은 정치적 가치를 위해 희생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화 과정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적 본능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며, 자연에 대한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본능 자체를 변화시킨다. 또한 문명은 인간의 욕망과 행복을 자연적 본능에 의존해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이시키며, 따라서 욕망과 행복의 성격이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킨다. 또한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리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문명이 개별적인 인간의 노력을 벗어나 자체로 움직이는 동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문명이 억압적인 요소를 지닌 만큼 해방적 요소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문명이론은 개인의 억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만 문명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이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그리고 문명에 내재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간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억압적인 문명 자체를 용인하게 될 뿐 아니라, 문명과 행복의 화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

5. 맺은 말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해 신경증이라는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치료하고자 했던 프로이트는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본능과 함께 이러한 본능이 억압된 세계, 즉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정신세계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낸다. 그는 무의식에 대한 해부를 통해 인간을 의식적인 주체로

규정하는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현대의 철학적 담론에 기여한다. 또한 프로이트는 쾌락본능의 충족이 인간의 행복의 주된 원천이지만, 문명화 과정은 자기보존을 위해 이러한 쾌락본능을 억압하게 되는 역사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와 함께 그의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심리적인 병리현상에 대한 분석을 넘어 문명에 함축된 인간의 행복과 자기보존 사이의 숙명적인 모순관계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오직 쾌락본능이라는 성적 욕망의 충족에만 의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억압을 토대로 문명이 가능하다는 그의 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론적 한계를 노출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의 행복이 지닌 다층적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내용의 다원성을 생물학적인 층위로만 제한하게 된다. 물론 프로이트는 ‘승화’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승화를 통한 행복의 실현은 제한적이며, 행복의 실현보다는 쾌락 본능의 억압에 따른 고통의 감소라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프로이트의 문명이론은 인간의 행복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문명을 인간이 처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문명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즉 프로이트 자신은 문명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이나 지나친 비관주의적 관점을 경계하지만, 결국 문명의 발전이 초래하게 되는 행복의 실현 불가능성을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염세주의적 역할”⁴⁵⁾에 이르게 된다.⁴⁶⁾

45) 허경, 「프로이트와 니체, 욕망의 ‘억압’과 ‘극정」, 『철학연구』 제 41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210쪽.

46) 물론 프로이트는 한편으로는 문명의 불가피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억압함으로써 야기되는 “문명 공동체의 병리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

그러나 인간의 삶은 문명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본능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용조차도 변화시킨다. 또한 문명이 야기한 불행에 인간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명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고자 시도한다. 인간의 본질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시도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열려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러한 병리적인 현상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열어둔다. S. Freud, 『문명속의 불만』, 328쪽. 그러나 허경은 프로이트의 문명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문명의 발전이 더 많은 억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 구조에는 출구가 없다”고 비판한다. 허경, 『프로이트와 니체, 욕망의 ‘억압’과 ‘긍정’』, 212쪽.

마르쿠제는 문명이 억압의 역사라는 프로이트의 진단 속에서 오히려 “억압 없는 문명”의 가능성을 간취해 낸다. 그는 “억압된 문명의 바로 그 성과가 억압의 점진적인 폐지를 위한 필수 조건들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문명에 대한 이론 내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마르쿠제의 이러한 논의는 “억압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그 자신의 사회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H. Marcuse, 『에로스와 문명』, 24쪽 이하.

참고문헌

-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창작과 비평사, 2003.
- 김석, 「쾌락자아와 현실자아」,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2013.
- 허경, 「프로이트와 니체, 욕망의 ‘억압’과 ‘긍정」」, 『철학연구』 제 41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 Freud, S., (김석희 옮김),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 , (임홍빈, 홍혜경 옮김), 『새로운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14.
- , (윤찬기,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5.
- , (김인순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18.
- Gasser, R., Nietzsche und Freud, de Gruyter, Berlin, 1997.
- Gay, P., (정영목 옮김), 프로이트 II, 교양인, 2014.
- Lacan, J., (권택영 엮음),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2003.
- , (맹정현, 이수련 옮김)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 Marcuse, M.,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출판, 2004.
- Marcuse, H. / Fromm, E., (오태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선영사, 2016.
- Touraine, A., (정수복, 이기현 옮김), 『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6.

From Desire to Culture -On Freud's Theory of Desire-

Chung, Mi-La (Chonnam Nat'l Univ.)

Die Psychoanalyse von Sigmund Freud zeigt die Grenze des modernen Denkens auf, das sich auf die Vernunft und das bewußte Subjekt gründet, indem sie das Problem der natürlichen Begierde und des Unbewußtseins des Menschen in neuartiger Weise beleuchtet. Eigentlich nahm seine Theorie ihren Ausgang von seiner Absicht, die psychische Pathologie des Individuums zu therapieren. Freilich erweitert Freud seine Einsicht auf eine Gesellschaftstheorie, nämlich eine Theorie der Kultur, indem er dem im Unbewußtsein unterdrückten Lusttrieb nachgeht.

Aber seine Psychoanalyse, nach der die Kultur nur dadurch ermöglicht werde, das auf den Lusttrieb angewiesene Glück zu unterdrücken, exponiert theoretische Grenze in einiger Hinsicht. Vor allem begrenzt Freud die Mannigfaltigkeit des Gehaltes vom menschlichen Leben auf bloße biologistische Ebene, indem er die vielschichtige Natur des menschlichen Glücks allzu sehr vereinfacht. Die vorliegende Arbeit will eine Möglichkeit herausarbeiten, das Glück und die Kultur zu versöhnen, indem sie die Diskussion von Freud über das Glück des Menschen und die Kultur kritisch überprüft.

Key words: Sigmund Freud, Begierde, Kultur, Unbewußtsein,
Selbsterhaltungstrieb

철학탐구 제53집

정미라 E-mail: mirachung@hanmail.net

투 고 일	2019년 01월 14일
심 사 일	2019년 01월 29일
게재확정	2019년 02월 22일